

표지면지

2013년 제3차 고령사회포럼

진행순서

13:30 ~ 14:00	등록
14:00 ~ 15:00	주제발표 좌장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주제 : 연령통합적 사회의 구현방안 모색 : 미디어, 지역사회, 가족 발표1 :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 - 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표2 :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 ~ 15:50	지정토론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정란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지승 (삼성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15:50 ~ 16:0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1.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 1
2.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23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미디어

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들어가며

문화적 차원에서의 연령통합은 어떠한 상태를 말할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그 통합의 정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일까? 특히 문화적 차원의 연령통합과 관련해 미디어의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 이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까? 본 발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적 연령통합

통합의 반대가 분리나 분열이라면 문화적 연령통합은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 간에 문화적인 분리나 분열의 상태가 없는 상태이다. 문화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연령통합의 논의에서는 문화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체계’로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연령통합은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 간에 삶과 세계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의미화 하는 방식에 있어 이질적이지 않은 상태이며, 또 그런 만큼 구성원들 간에 이로 인한 분열이나 갈등 등이 별로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문화적 연령통합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나라일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나이 든 세대는 혹 ‘꼰대’나 ‘구닥다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통의 관심사나 대화의 주제를 찾기 힘든 타자들이기 쉽다. 인문학에서의 타자가 ‘내 뜻 같지 않은 존재’, 혹은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존재’라고 하면 현대 한국사회에서 젊은 세대에게 윗세대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쉽다.

소비자본주의가 심화된 만큼이나 젊음이 숭배되는 한국사회에서 낮은 문화적 연령통합은 흔히 나이든 세대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나타난다. ‘클럽’들은 관례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을 고객으로 받지 않으며, 그 반대편에는 곤궁한 노년들을 위한 ‘콜라텍’이 영업 중이다. ‘금지’된 장소들이 아니라도 도시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수많은 공간들이 산포되어 있다.

이러한 '느낌'은 나이든 사람들을 향한 젊은 세대의 말과 태도와 눈빛에 기인한다. 그런 말과 태도와 눈빛은 때론 노년을 '셈되지 않는 존재', 혹은 '비존재'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의 느낌은 가령 내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곤 “어, 여기 아무도 없네” 하며 나가버리는 경우의 느낌과 닮은 것이다. 필자는 언젠가 여고생과 단 둘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친구가 나와 같은 나이든 남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 속에 있게 된 것이 내키지 않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실제로는 그 느낌은 단지 나의 자격지심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자격지심은 그 자체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일종의 '주변성'으로 느끼게 하는 무수한 일상의 경험들의 축적되어 빚어내는 효과이다.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려 할 때 “내가 이제 노인인가?”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노년이 지니는 주변성에 대한 인식도 항시 '바깥'에서 온다.

이러한 경험은 물론 산업화된 사회의 도시에 널리 퍼져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유럽을 다녀온 여행객들 중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섞여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장면들을 보고 신기했다는 얘길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사회가 노년에게 자리를 양보할지는 몰라도 '경로석'이 분리되어 있듯이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는 '문화적 이질감'으로 분리되어 있다. 내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들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사회보다 더한 나라의 얘기를 접한 적이 없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세대 간의 심화된 문화적 이질화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세대 간 문화적 이질화와 급속한 근대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친 한국사회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은 '돌진적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것이었다. 세대 간의 이질적 경험과 이질적 문화는 그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현 노년세대의 생애 경험과 현 청년세대의 경험은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이하다. 어렸을 때는

자동차도 구경하지 못한 세대와 두 살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며 자란 세대가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낮은 문화적 연령통합 현상은 단순히 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과정을 거친 상이한 코호트(cohort) 간의 문화적 이질성의 문제에 기인한다. 대가족, 가부장제, 권위주의, 국가주의, 집단주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현 노년세대와 핵가족, 남녀평등,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현 청년세대의 문화적 이질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세대 간의 이질성이 서구 국가들의 경우보다 더 심한 현상의 배후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경험, 사회화, 환경은 다른 정서, 가치, 의미, 욕망의 체계를 구성한다. 현 청년세대는 ‘대한민국 아버지 연합’이 보이는 모습은 이해 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막가는’ 행위이기 쉽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6개월이 한 세대”라는 얘기가 반은 진담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수십 년이란 간격은 ‘아득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리이다.

미디어와 노년의 타자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감 중에서도 노년에 대한 이질감은 특히 두드러진다. 즉 노년은 현 한국사회의 대표적 문화적 타자, 즉 이질적 존재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주범’은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워낙 광범위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요한다.

우리 시대의 문화산업은 아이들의 꿈을 단기간에 ‘대통령’과 ‘간호사’로부터 ‘연예인’과 ‘운동선수’로 바꾸어 널만큼 ‘가공할 교육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산업이 창출해 내는 노년의 이미지들은 그들이 노년에 관해 어떠한 담론을 구성해 내든지 간에 현대사회 노년의 문화적 이미지를 그려 나가는 과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요컨대 문화산업이 유포하는 노년의 이미지들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며 노년을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이질적인 문화적 존재로 구성한다.

다종다기한 문화산업매체들 중 가장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티브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년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의 노년들의 처지를 다루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자식들에게 버려져 갈 곳 없는 노년들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난과 소외에 장애마저 겹쳐 더욱 힘겨운 노년의 삶에 대한 소개 등등, 노년의 어려운 실상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루는 소재는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아름다운 실버>와 같이 ‘평범한’ 노년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도 간헐적으로나마 선을 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흔하지도 않거니와 혹 방영되는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심야시간대에 편성된다. 방송의 시선이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노년들의 처지에 닿아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이질적인 노년의 모습에 대한 방송의 과도한 시선집중은 그렇지 않아도 점차 연민이나 비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노년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노년이 이런 방식으로 타자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도시의 소외된 노년이나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농촌에 남은 노년과 같이 주변화된 노년들, 달리 말하면 근대적 부문의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되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익명의 노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은퇴한 ‘회장님’같이 아직도 ‘잘 나가는’ ‘유력인사’를 노인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최근에 ‘노인’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예전에 ‘차장’이란 호칭에 실린 비하의 느낌이 강해지자 ‘안내양’이라는 말이 고안되었던 것과 같은 사정이다.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일종의 ‘완곡어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범주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완곡어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는 종종 주변화의 진행을 시사한다.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먼저 노년의 주변화가 시작된 미국의 경우, 노년을 지칭하기에 적절한 새로운 ‘완곡어법’이 꾸준히 모색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역연령에서 앞선(chronologically advanced)’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형용어의 사용이 제안되기도 한다.

〈장수퀴즈〉의 경우

‘노년=소외된 노년’이라는 등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노인이라는 사회적 범주는 점차 (서구적인) ‘풍요와 세련’의 강박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가 일종의 ‘모자람’이나 ‘촌스러움’을 투사하는 대상으로서의 문화적 타자가 되어가고 있다. 영상매체는 이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한 예로 몇 년 전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TV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장수퀴즈〉를 들 수 있다. 이 코너는 출연자인 농촌 노년들로 하여금 우리사회가 자신을 규정함에 있어 거리를 두고 싶은 대표적 속성 중의 하나인 ‘촌스러움’을 드러내도록 기획되어 있다. 퀴즈 문제 중에는 그 답이 영어로 된 상품명이거나 혹은 외래어 같이 매우 쉬운 영어 단어인 경우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농촌 노년들의 엉뚱한 답이나 어색한 영어발음은 거의 예외 없이 자막으로 강조되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증폭시킨다.

그 외에도 이 코너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제도교육을 받고 근대적 부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하지만 농촌의 노년들에게는 생소하기 쉬운 단편적 지식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쉽게 답할 수 있을 만한 문제에 출연자들이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뒹구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몸짓도 출연한 농촌 노년들의 이질화를 부추긴다. 또 시청자들은 이런 기획이 빚어내는 웃음에 동참함으로써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노년을 타자화의 과정의 ‘공범’이 된다.

〈장수퀴즈〉는 농촌 노년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의 외양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출연 노년들의 속성으로 규정되는 특성은 ‘모자라는 근대적 지식과 판단력’, ‘세련되지 못한 매너’ 등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촌스러움’이다. 현대 한국에서 농촌 노년이란 단지 이러한 특성들을 투사하기에 적합한 대상일 따름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근대화와 풍요를 향한 강한 문화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화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타자화된 노년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도 결국은 우리사회에 팽

배해 있는 이러한 문화적 강박관념과 차별화에 대한 욕구에 터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끄는 현상은 노년들 중에도 <장수퀴즈>를 즐기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이다. 노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의 시선 속에 비친 나’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때의 경험처럼 분열적인 것이기 쉽다. 사실 나이든 시청자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행해지는 노년 희화화에 화를 내는 경우도 많고, 또 간혹 출연 당사자들도 진행자의 태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프로그램을 보며 마냥 즐길 수 있는 노년들은 누구일까? 그런 노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마도 근대적 부문에서의 자신들의 교육적, 사회적 성취로 인해 ‘촌스러움’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세련되고 풍요로운 노년’들일 것이다. 이런 경우의 ‘세련된 노인’들은 자신을 ‘노인’이라는 범주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의 범주와 동일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다.

물론 <장수퀴즈>에 출연하는 노년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속의 ‘촌로’들의 모습에서 모종의 편안함, 또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퀴즈 진행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사회자에게 “나 소피 좀 보고 와야겠어” 하고 요구하는 노년의 모습에서,¹⁾ 또 알 수 없는 영어로 질문을 해 오는 외국인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저게 무슨 소리여, 저게?”라고 옆의 사람에게 묻는 등의 모습에서 많은 ‘세련된’ 시청자들은 웃음과 함께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즉, 자신들은 차마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천연덕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노년들의 모습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면도 있다. 노년들의 이런 행동은 ‘세련됨’의 결여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세련됨에 대한 문화적 압박에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년들의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1) 출연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면 이런 장면들은 보통 당연히 ‘편집’되는 장면들이다. 이러한 장면들을 여과 없이 방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근대적 세련됨이라는 문화적 억압에서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타자화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부정의 역설은 대중매체가 농촌 노년들의 '훼손되지 않은 순박함'에 대해 보내는 '향수'의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즉, 노년을 다루는 대중문화상품들이 종종 노년에 보내는 '따뜻한 시선'에는 노년들을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과거에 고착된 존재'로 보는 부정적 시선이 결합되어 있다. 퀴즈가 끝난 후 감미롭고 서정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지난 시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애뜻한 회상과 그 희생에 대한 칭송이 담긴 애니메이션이 이어지는 <장수퀴즈>의 마무리도 그 한 예다. 또 영화 <집으로>에서 주인공 할머니가 보여주는 사랑과 희생에 보내지는 따뜻한 시선도 같은 맥락에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어머니 혹은 할머니는 유난히 '과거에 고착된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과거에 묶어놓고 칭송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타자화의 경향성은 <전원일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농촌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향수의 대상으로 그려내는 경향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즉, 이들 경우에 타자는 흔히 특정한 미적 존재로 신비화되고 향수의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아직 합리성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과거에 고착된 존재이다.²⁾ 요컨대 이 '순박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 할머니들은 근대적/서구적/도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세련된 나'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된 과거에 고착된 것으로 그려지는 이질적 타자이다.

이렇게 과거에 고착된 모습으로 형상화된 타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흔히 억압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막상 오늘의 현실에서 영상 속의 이미지대로 행동하게 되면 시대에 뒤쳐진 존재로 취급받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출해 '현대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흔히 '경박'하다거나 '주책'이라는 평가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영상 속에서 '추억 속의 순박한 어머니'로 칭송 받는 노년은 내일 당장 머리를 화사하게 염색하고 몸단장하고 외출하고 싶은 어머니일 수도 있는 것이

2) 나는 <춘향전>같은 영화가 국내에서 보다 서유럽에서 더 주목받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 영화는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동양을 타자로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서양의 입맛에 딱 맞는 영화이다.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모습에 대한 칭송은 흔히 현실에서의 차별과 문화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기능한다. ‘양날을 지닌 칼’과도 같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 역시 타자화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전술한 바와 같은 미디어의 노년 재현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노년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젊음 늘이기"의 각본: 공상적 노년 담론의 경우

개인들에게 삶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또 이에 대한 꿈꾸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화가 제공하는 상상력이어서, 우리의 문화가 노년의 삶에 관한 매력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노년에 관해 키울 수 있는 상상력도 그만큼 부실해지기 쉽다.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이삼십년을 살아내야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시대에, 즉 노년에 추구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청사진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역설적으로 노년이라는 삶의 무대를 뜻하는 이야기로 채워 줄 문화의 각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디어가 근래에 들어 열의를 가지고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청년 같은 노년’의 이미지들이 노년담론의 이러한 공백을 채우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도 색다른 노년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노년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추동하고 구성하는 새로운 문화적 각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주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의 노년의 모습에 주목하던 대중매체는 이제 다채로운 만큼이나 낯선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부지런히 조명한다. 몇년 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이 모집했던 ‘청춘합창단’에 지원한 노년들의 모습이 그 한 예이다. 카메라는 이들이 ‘노인’이라는 문턱에 갇히지 않고 오디션이라는 낯선 관문에 도전하고, 또 한마음으로 노력해 합창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 드라마로 그려낸다. 새로운 일에 열

정으로 도전하는 이들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청춘’이다. 합창단의 지휘자는 “청춘은 항상 시작입니다”라는 얘기로 노년 참가자들의 새로운 도전의 뜻을 자리 매김한다.

이렇게 나이를 넘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다양한 노년의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노인’이 아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복장으로 미인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노년 여성들, ‘노인 모델’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노년 남성,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70대의 ‘철인 할머니’와 ‘철인 할아버지’를 포함해 열정적 노년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시대 새로운 노년의 표상으로 대중매체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광고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70세 열혈남, 미래를 질주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오토바이족의 복장을 한 ‘젊은 노인’을 모델로 등장시키는 한 기업광고의 카피는 다음과 같다 - “할리 데이비슨과 아우토반을 열망하는 젊은 할아버지. 그에게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청년 - 그가 눈부십니다.” 형용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 ‘청년 노인’의 이미지가 노년의 새로운 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낯선 노년의 모습들은 일면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식으로 노년을 억압하는 연령주의 문화의 족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새로운 노년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다. 또 이들의 새로운 시도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곧 쇠퇴의 과정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년의 결기도 엿보게 된다.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연령주의의 족쇄를 거부하는 노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응원한다. 하지만 문화인류학자로서의 나는 노년의 삶을 빛내 줄 새로운 가치로 ‘청춘’과 ‘젊음’을 호명하는 이런 문화적 흐름을 성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어떤 연유로 청년의 전유물이었던 ‘열정’이 갑자기 장년, 중년을 넘어 노년에게 기대되는 속성이 되었을까? 우리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노년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노년담론이 조명하는 바람직한 노년의 상은 그 내용에 있

어 ‘청년, 혹은 중년의 끝없는 연장’으로서의 노년이다. 언뜻 보기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이러한 ‘연장된 젊음’의 이미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즉 ‘젊은 노년’의 이미지들은 사실상 나이듦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육체적 기능의 저하, 증대하는 의존, 다가오는 죽음 등의 노년에 고유한 삶의 경험이나 과정을 ‘회피’하거나 ‘은폐’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영원한 청춘’의 신화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거나 이를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요컨대 노년에 고유한 경험들을 회피, 은폐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문화적 각본은 노년의 삶을 조명하는 새로운 문화적 청사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긍정적 젊은 노년의 이미지들은 적어도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청춘’ 노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시 어딘가 ‘모자란’ 존재들이다. ‘청춘합창단’의 경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년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에는 시청자들의 눈물샘까지 적시는 사랑의 감동과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울동과 함께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 부르는 노년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방청객들의 환호와 웃음에서 아이들의 학예회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표정에 깃드는 ‘대견함’의 감정을 읽게 되는 것은 나만의 경험일까? 노년 참가자들이 경연에서 선보인 노래와 울동은 모두 이들이 더 젊었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혹 방청객들의 감동은 불완전하나마 젊음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노년들을 ‘대견해’하는 것은 아닐까?

노년들의 다양한 분투를 보며 우리는, 또 우리 문화는, 최대한도로 유지되고 있는 ‘청춘’ 이외에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어떤 다른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고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분투에 감동하는 순간에도 노년을 젊음이 훼손되거나 결핍된 상태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분투’에 감동하는 것이다. 새로운 노년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문화적’ 질문들과 본격적으로 씨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노년의 모습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카메라와 자막은 계속 출연자들의 '아이 같은' 엉뚱함이나("직진 순재", 걷기 싫어하는 "일섭") '대책 없음'과 같은 무계획성을 강조하고, 중년들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의 실행은("근형"의 환전) 칭찬의 대상이 된다. "어, 아직도 그런 걸 할 수 있네"의 뜻의 "오~"와 같은 감탄사가 배경에 깔린다. 이들의 이름을 성을 빼고 부르는 것도 노년의 권위를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 물론 이런 일종의 '희화화'의 사이사이에 이를 누그러뜨리는 배려심이나 너그러움 같은 인간미를 끼워 넣는다. 사람에게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중년보다는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전개된다.

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또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으로서 새로운 열정으로 노년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아마 나도 '청춘합창단'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면 그들과 같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일들이 노력과 인내를 통해 현실이 될 때의 기쁨과 감동을 누구나 쉽게 폄훼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노년의 열정과 시도들을 "젊음 늘이기"라는 노년 회피의 담론으로 포장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화와 대중매체의 상상력의 결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년의 호명을 통해 본 문화적 이질화 현상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년의 호명방식도 노년의 이질화를 심화시킨다. 노년들 스스로도 이를 감지해 근년에 들어 '노인'이라 불리는 당사자들 스스로가 노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 예로 2008년에 열렸던 한 노년학 컨퍼런스에서 연단에서의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 질의의 기회가 주어지자, 대략 80세 부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손을 들고 일어나, "나는 노인이라는 말이 싫은데, 학자들이 노인이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하나 만들 수는 없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이에 더해 "정 마땅한 용어가 없으면 '노인' 대

신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호칭어(term of address), 즉 부름말이어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노년에 대한 지칭어(term of reference), 즉 가리킴말로 주로 사용하는 학계에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이다.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199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노인’ 대신 노령인구를 표현할 호칭을 공모해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선정, 홍보한 적이 있다. 또한 2010년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 개최한 “나이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호칭”이라는 제명의 세미나에서도 많은 참석자들이 노인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년의 호명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호명방식들이 현실의 다양한 장면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부르는 사람은 나름대로 노년을 존대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어르신’, ‘어머님’과 같은 호칭들도 막상 당사자에게는 ‘나이듦에 대한 낙인’의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근래에 점차 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또 노년의 호명은 왜 이리 문제시 되고 있을까? 노인이라는 용어의 주변화는 물론 현대사회에서의 노년의 주변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여기서는 노년의 호명을 둘러싸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언어현상들의 의미를 노년의 이질화와의 관련에서 조명하려 한다. 특히 ‘노인’이라는 용어의 사용방식을 중심으로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현상들에 배어있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차별적 시선의 성격을 밝히려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누구를 부를 때의 호칭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과거에 노년을 높이어 부를 때 많이 사용되었던 ‘노인장’이라는 호칭도 거의 사라졌다. 이는 ‘노인’이라는 형용어의 부정적 느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장’이라는 높임말의 어감을 누르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호칭어로서만이 아니라 지칭어로서도 그 사용이 조심스러워진 용어가 되었다. 그만큼 노인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나이든 사람’을 통틀어 지시하는 지칭어가 아니며 이제 ‘별 볼일 없어진’ 익명의 노년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요컨대 오늘날 노인이라는 지칭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생물학적 현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나이와 결합되어 있는 ‘별 볼일 없는’ 사회적 위상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사용에는 흔히 그 배후에 노년을 일종의 ‘낮은 신분의 표식’으로 간주하는 신분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은 ‘소외된 노인’이나 ‘힘없는 노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정적 수식어들과 더 어울리는 지칭어가 되어 간다. 따라서 ‘노인 사장’, ‘노인 국회의원’과 같은 결합은 일종의 형용모순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 ‘청년의 열정’은 자연스러워도 ‘노인의 열정’은 부자연스럽다. 여성 지식인, 게이 지식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인 지식인’이라는 말은 없다. ‘노인’은 지식이나 열정의 주체이기에는 어딘가 모자라는 존재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흔히 사용되었던 ‘노인의 지혜’와 같은 표현도 이제 거의 쓰이지 않으며, 혹 쓰인다 해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지혜’와 같은 표현은 젊은 세대에게 별 울림을 주지 못한다. 이제 노인이라는 기표의 부정적 색채는 이와 어울리는 부정적 색채를 지닌 기표들을 그 주변으로 부르고 있다.

더 나아가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이제 이와 결합되는 말들의 어감도 부정적으로 채색되기 시작했다. 가령 근래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독거(獨居)노인’이란 표현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란 표현은 ‘원치 않는 사정에 의해 돌보아 줄 사람 없이 홀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을 떠올리게 한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에서 ‘넓은 평수의 강남 고층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의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아들딸이 같이 살길 원해도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독거’를 선택하는 수많은 노년들의 현실도 부정적으로 채색된다.

하지만 독거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독거의 즐거움’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독거의 의미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며, 그렇게 보면 ‘독거노인’이라는 기표는 단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노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노인’이라는 부정적 용어와의 결합이 ‘독거’라는 수식어의 빛깔을 부정적으로 채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부정적 의미함축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히 주목되어야 할 현상은, 다양한 언론매체와 전문가집단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보이는 호명방식, 혹은 언어적 실천의 특정한 경향성이다.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부정적 의미를 담게 되는 배경에도 언론매체와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언어적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사정의 노년들이 나이듦과 더불어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독, 빈곤, 소외, 질병 등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를 논의하는 맥락에서만 주로 등장한다.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 ‘독거노인 케어’, ‘독거노인 봉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독거라는 용어는 점점 더 부정적 의미연관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20대의 젊은이가 혼자 살면 ‘자립’, ‘독립’, 혹은 ‘원룸 거주’가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외롭고 소외된 ‘독거’가 된다. 요컨대 노인이라는 기표가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이나 언론매체가 만들어내고 또 확산시키는 ‘노인’이라는 기표의 특정한 사용법이 발생시키는 노년의 문화적 이질화 현상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현재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노인이라는 기표의 주변성은 단지 연령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노인이라는 기표의 주변화는 서구의 성취를 해바라기하며 가파르게 진행되어 온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강화된 일종의 ‘근대적 신분주의’의 시선이 연령주의와 결합해 빚어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에도 우리 사회의 차별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시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지칭 방식은 노년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어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는 중년 여성을 ‘여성 중년’이라고 부르거나, 젊은 남성을 ‘남성 청년’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성인의 연령대를 지시하는 지칭어들은 항상 여성, 남성을 수식하는 위치에 자리한다. 가령 ‘중년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중년’은 ‘남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이 경우 지칭되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유독 노년을 호명하는 경우에는 ‘남성 노인’의 경우처럼 ‘노인’이라는 지칭어가 ‘남성’이라는 수식어의 뒤에 배치되어 지칭되는 대상이 ‘늙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렇게 ‘노인’이라는 기표를 뒤에 위치시키는 표현법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노년이 지니는 이질성을 대상 인식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우선적인 범주로 제시한다. 이미 노년이 점점 더 이질적 타자로 간주되는 풍토에서 이러한 호명방식은 노년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요컨대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상의 인식에 있어 노년의 경우에만 유독 나이를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와 그 궤를 같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일상의 언어적 실천에는 노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과 충돌하는 호명방식은 일종의 형용모순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여성’, 혹은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즉, ‘노인’이 여성임을, 혹은 남성임을 강조하는 ‘노인 여성’,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은, ‘노인’을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적 시선과 충돌한다.

요컨대 연령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특히 ‘여성 노인’은 비성적(非性的) 존재이다. 따라서 비성적인 ‘노인’이 성적 존재임을 강조하게 되는 ‘노인 여성’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의 느낌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노인 여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아동 여성’, 혹은 ‘유년 여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아동, 유년은 여성이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며, ‘노인’은 여성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존재이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던 1970년대에도 ‘할머니’의 흡연은 비난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는 더 이상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불완전한 성적 존재로 간주된다. 가

령 언론에 간혹 ‘노인 매춘’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노년 남성들의 성매매가 중년 남성들의 성매매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 백안시된다는 사실은, 노년을 비성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적 편견이 남성에게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매춘’이라는 말은 있어도, ‘중년 매춘’, ‘청년 매춘’이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영화에서 종종 젊은 여성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50-60대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성적 존재로서의 위상의 훼손정도가 여성에 비해서는 덜하다. 만일 노년 여성이 ‘호스트바’에 가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는 노년 남성의 성매매 행위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종의 ‘문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연령주의적 편견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시기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항상 연령주의에 의한 여성의 비성화가 남성의 비성화에 선행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좀 다른 차원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남성성’의 훼손은 나이듦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성취’의 결핍에 의해서도 촉발된다. 버틀러에 의하면 남성성은 육체를 초월해 성취되어야 하는 추상성이다. 남성은 ‘문명’으로, 여성은 ‘자연’으로 대비되는 남성 중심적 젠더 담론에서는, 여성성은 몸과 성의 영역에 한정되며, 따라서 여성성의 성취는 여성이 자연, 몸에 묶인 존재일 때 가능하다. 반면 남성은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문명’을 성취할 때 남성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에는 연령주의에 더해 ‘남성 노숙인’에 비해 ‘노숙인 남성’, 혹은 ‘노숙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더해져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근대적 부분의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뜻을 담게 된 ‘노인’이라는 기호는 ‘노숙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인 ‘남성’을 수식하기에는 적당치 않는 기표인 셈이다. 따라서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에는 ‘노인 사장’이나 ‘노인 지식인’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유가 더해진다. 요컨대 ‘노인’은 성취를 이룬 존재인 ‘사장’이나

‘지식인’이기에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과 남성이 점점 더 비성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현상에는 연령주의와 함께 성별에 따라 달리 작동하는 남성중심적 젠더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 즉, 나이가 들에 따라 ‘여성 노인’은 여성성 성취의 근간인 ‘몸/자연’을 잃고, ‘남성 노인’은 남성성 성취의 근간인 ‘문명’을 잃는 셈이다. 노년 호명에 있어 연령주의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렇게 남성 중심적 젠더 담론이나 신분주의와 결합한다. 사실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균질하게 작동하는 연령주의, 혹은 이데올로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되는 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호명이 현실에서 지니게 되는 부정적 정치성의 배경을 이룬다.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노년이 이미 타자화된 상황에서 이런 호명방식은 ‘노인’이라는 기표가 지니는 ‘우선성’으로 인해, 여성, 남성이라는 특성이 ‘노인’이라는 범주에 흡수되는 효과를 낳는다.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놓여 있는 콘텍스트와의 관련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의 의미도 결국 그런 호명방식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성차별적, 신분주의적 지배문화와의 관련에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중립적’ 기표라 할 수 있는 ‘노인’이라는 지칭어가 오늘의 현실에서 띠게 되는 부정적 함의도 우리사회의 특정한 언어적 실천과 그 배경을 이루는 문화적 풍토와의 연관에서 구체화된다.

문화적 차원에서 노년의 주변화가 심화되면, 거꾸로 ‘주변성의 노년화’를 부른다. 주변성의 노년화란 노년이 단순한 타자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변성들을 표상하는 일종의 ‘타자성의 집적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의 타자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노년은 점차 낮은 신분, 모자람, ‘춘스러움’, 과거에의 고착, 주체의 결핍, 등의 다양한 주변성이 쌓이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범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노년의 주변성이 심화된 연령주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우선적인 문화적 범주로 강요된다. 그 결과 개별적 주체의 정체성에 '나이'라는 요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라는 문화적 범주가 노년의 개별적 정체감을 덮어 버리게 된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특성보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알튀세에 따르면 개인은 이데올로기의 호명(interpellation, hailing)에 의해 주체로 구성된다. 즉,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봄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주체의 성립은 이데올로기에 선행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노년 주체는 연령주의, 신분주의,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된 이질적인 문화적 주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 주체는 다양하게 접합된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해 '오염'된 주체이며, 그만큼 문화적 이질화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년 주체의 형성은 어려워진다.

담론주체로서의 노년학의 역할

노년의 타자화라는 맥락에서 보면, 노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노년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노년학도 성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년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인들'을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구성한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노년' 혹은 '늙음'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범주'는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고 기능한다. 하지만 학문분야로서의 '노년학'은 노년을 특정한 문화적 범주로 채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문적 연구의 특정한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노년인구를 특별한 '사회적 범주'로 구성한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노년'이라는 범주가 다른 변수들에 앞서 우선성을 지니게 된다.

가령, 노년의 범죄행위의 문제를 노년학에서 다룰 경우 이는 '노년'의 문제가 되기 쉽다. 하지만 중년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이는 그저 '범죄행위'의 문제가 된다. 노년학의 이론들이 적어도 구체적 설명에 있어서는 노년의 문제들을 나이들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역할상실과 같은 모종의 외부적, 혹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년’이라는 기호는 ‘이름’에 불과하지만, 노년이 타자화된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름이 많은 것을 ‘설명’하는 우선적 범주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노년학이 지니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 혹은 ‘역설’은 노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실에서 노년이 감당해 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필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일이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감당해내어야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노년의 문제’에 주목하는 노년학의 경향성을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범주의 우선성은 노년의 문화적 이질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만일 노년이 현재와 같이 타자화, 주변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년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의 정치성에 대한 이러한 고민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범주의 주변화/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문으로서의 노년학이 어떻게 노년이라는 범주를 앞세우지 않고 노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기한 현상과 문제들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범주를 필요로 한다. 청년이라는 범주이든, 동성애라는 범주이든, 혹은 노년이라는 범주이든 간에 ‘범주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관건은 이 ‘범주’의 이름을 누가 붙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 설명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나이란 종종 그 자체로서는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 무의미한 변수(empty variable)이다. 노년학이 3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을 노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호명하고 포획해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설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숙고되어야 한다. 젊음이, 즉 주체는 그냥 ‘인간’이어서 자신을 호명하지 않는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담론으로서의 노년학은 누구의 시선과 목소리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인지가 성찰되어야 한다.

나가며

미디어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와 서사에 열심히 기댈 수밖에 없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은 앞으로도 오랜 동안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그려질 것이다. <꽃보다 할배>는 제목부터 노년을 희화화한다. 비노년 시청자들은 이질적인 혹은 좀 모자란 타자로서 그려지는 노년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즐긴다.

이런 흐름에서 사라지는 것은 삶의 후반부를 채워나갈 문화적 상상력이다. 개인은 문화라는 창고에서 삶과 성장에 관한 상상력과 비전을 공급받는다. 미디어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가 나이들의 과정에 동반될 수 있는 긍정적 삶의 청사진을 상상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노인스러움'을 부정하거나, 혹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끝없는 젊음의 서사에 자신의 노년의 서사를 기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육십 가까운 나이에 '성장'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꾀다. 십년 전의 나보다는 지금의 내가 더 성장했다는 서사를 쓰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노년의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사가 필요할까?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큰 위기로 부각되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 등의 가족구조 변화 등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처해 있는 신사회적 위협에도 노출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다른 세대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역량축적과 발전의 심리·사회적 기회로부터 노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소외시켜왔으며, 생애주기적 관점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환경은 노인의 인적 및 사회적 자원을 축소하는데 기여해 왔다(김경호, 2005). 실제로 노인의 사회적 자원은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비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과 성민현, 2012; 정순돌, 김유휘, 최혜지, 2013). 이와 함께 정경희(2004)는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차별주의적 시각으로 인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후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공적 체계의 구축 및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대됨으로써 노인을 우대하는 긍정적인 연령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부정적 측면에서의 연령차별이 노인의 가능성 실현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적 비용, 경제적 비용, 사회문화적 비용 등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집단의 성격에 의하여 개인이 판단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은 곧 노인에 대한 억압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Young, 1990; Laws, 1995; 김옥, 2002; 정경희, 2004).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연령차별이 더욱 확대된다면 여러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통합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령통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령통합에 대한 담론이 대부분이며(Uhlenberg, 2000; Riley & Riley, Jr., 2000; Attias-Dunfut, 2000), 실제

로 가족, 지역사회, 노동시장 등에서 연령통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가족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중 가장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사회체계에서의 미시적 단위로 부모와 자녀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는 결혼과 혈연에 기반한 공동체다. 때로는 공동의 거주를 포함하기도 한다. 가족안에서,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나이드은 구성원들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교환한다. 가족 구성원 내의 세대간 상호작용은 사랑과 애정에 기반한 유대로서 특징지어진다. 즉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세대들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끈끈한 연대가 유지되기도 한다(Foner, 2000). 이러한 가족의 특성으로 보면 가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령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나 지역의 구성원이 되는데 장벽이 있지 않다. 가족은 연령과는 무관한 사회(age-irrelevant society)제도이며,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된다. 따라서 가족은 진정한 연령통합된 사회제도를 대표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Hagestad & Uhlenberg, 2006: 6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이 갖는 연령통합의 특성과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통합 현황을 살펴보고, 이 현상이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단위로 가족과 관련된 의미의 연령통합의 장으로서 중요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령통합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령통합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 개념

연령통합은 연령차별과 연령주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Riley(1998)가 연령통합의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그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연령통합의 개념은 일, 교육, 여가에서 구조적 연령장벽이 없는 상태로, 이러한 제도들에의 진입과 탈퇴는 유연하며 모든 연령대에 열려 있는 개념이다(Riley & Riley, 2000). 여기서 ‘세대’라는 용어와 연령이라는 용어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세대란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여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박재홍, 1999). 일반적으로 노인세대, 아동세대, 베이비붐세대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세대에는 이미 연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대통합’은 연령통합과 유사하게 사용되며, 여러 세대 즉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McClusky, 1990; 한정란, 2002, 재인용).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령통합과 세대통합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연령통합의 두 요소는 연령장벽의 부재와 연령간 상호작용의 존재이다. 연령장벽 구조의 부재는 연대기적 연령이 더 이상 사회적 시스템의 진입과 탈퇴, 수행을 위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간 상호작용의 존재는 서로 다른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모든 연령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 연령장벽이 없으면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가족 기능, 노동시장, 사회제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세대간의 연대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령통합의 개념이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 구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유형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라는 개념은 1999년 국제 노인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N이 고령화 정책의 이상적인 목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개념이 고령화와 결합한 네 가지 측면은, 노인의 환경, 개인의 생애발달, 다세대간 관계, 그리고 고령인구의 발전이다(Sánchez & Martínez, 2007: 17-18). 즉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

적 포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노인과 모든 연령집단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은 노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과 함께 해결해 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연령통합은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화 이전까지 사회적 쟁점은 아니었다.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노부모를 보호하고 존중하였다. 노인들은 그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권위와 힘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경직된 생애과정으로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연령이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노인은 그들의 직장에서 떠나야 했고, 사회참여로부터 퇴출되었다. 연령기준을 사용한 또 다른 사례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Otto Von Bismarck는 1883년 65세 이상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계획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퇴직연령을 설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은퇴는 질환이 있고 실직한 노인을 위한 안전망으로 여겨졌지만 반대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고 퇴직하는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의 연령분절적 구조는 20세기동안 유지되어왔다(Loscooco, 2000). 세대간 상호작용 없는 연령주의와 연령 고정관념은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보다 긴 수명에 대한 기대는 연령통합사회로의 회귀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져왔다. Riley & Riley (2000)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연령통합의 트렌드도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연령통합이 등장하면서 청년, 중년, 노년의 연령분절적 국면은 연령의 연속적 삶으로 합하여졌다. 또 다른 변화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기회와 관련된 것이다 (Riley, 1998: 4). 모든 연령을 위한 구조적 기회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Riley, 1998: 5).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조기은퇴 추세는 완화되었다.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은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모두에게 연령통합의 예가 된다. WHO 프로젝트인 고령친화 도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서울도 2013년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다. 연령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 결속의 유대관계 형성에 있다.

3.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현황

1)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의 의미

미시적 사회체계로서 가족은 연령통합적 모델에 적합하다(Foner, 2000). 연령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안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연령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세대간 연대를 촉진시키며 모든 연령대의 가족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 다른 연령의 구성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가 인구학적으로 고령화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족 내 연령통합은 강화된다. 가족 내 연령통합은 가족의 경제적인 이익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유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정경희, 2004; Attias-Donfut, 2000).

우리나라의 경우 규범적인 측면에서 다른 연령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전국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에서의 응답들은 많은 한국 노인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아직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자연스런 행동으로 이해된다. 우리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유교주의에 기초한 가족주의에 의해 영향 받아왔다. 부모자녀는 한 단위로서 간주 되어왔다(류정현, 2007: 88). 우리 사회의 부모-자녀 관계 개념에서 보면 그들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심리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여전히 한 가족이다(임돈희, 자넬리, 2002: 332). 이 점에서 자식의 의무는 부모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서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양측의 윤리적 기준이 되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식의 의

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류정현, 2007: 89).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성과 상호성의 높은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답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한다(임돈희, 자넬리, 2002: 324). 자식의 의무는, 자녀가 건강관리와 스스로 돌보는 것에 실패한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도리가 된다(Mercier, Shelley, & Wall, 1997: 164). 이와 같이 가족은 규범적, 윤리적 측면에서 연령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역시 가족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이 다 제공하지 못하는 보호와 부양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아동데이케어서비스, 노인데이케어서비스, 아동교육시설, 노인여가시설 등과 같은 서비스가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를 함께 전개해 가고자 한다.

2)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현황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현황은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애정과 교환을 기반으로 가족 체계 내에서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배우며 사회화되면서 이것이 연령통합을 촉진시킨다.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에서 자원교환은 흔하게 발생하며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것이다.

유럽에서 50세 이상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사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주고 받으며, 3분의 2가 동거하지 않는 가족구성원과 기능적 지지를 교환한다(Kohli, Hank, & Künemund, 2009). 50세 이상 유럽 인구의 21%는 자녀들에게 재정적 이전을 제공하고 3%만이 자녀로부터 재정적 이전을 받으며, 조부모의 46%가 손자 돌봄 등의 사회적 지지를 자녀들에게 제공하였다(Albertini, Kohli, & Vogel, 2007).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향하는 자원 이전이 자녀에서 부모로 향하는 것보다 더욱 흔하고 일반적이며 더 강도가 높다.

〈표 1〉 유럽 50세 이상 인구의 재정적 이전과 사회적 지지

구분	재정적 이전		손자녀 돌봄 등의 사회적 지지	
	give	receive	give	receive
50세 이상	21%	3%	46%	37%

출처: Albertini, Kohli, & Vogel, 2007

재정적 이전과 시간적 이전을 비교하면, 50세 이상의 46.3%가 자녀나 손자녀로부터 재정적인 이전을, 56.9%가 시간적 이전을 받았던 반면, 이들 중 80.3%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재정적인 이전을 제공하고 24.7%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시간적 이전을 제공하였다(Attias-Donfut, Ogg, & Wolff, 2005). 프랑스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다른 세대간 자원을 교환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Attias-Donfut, 2000). 즉, 재정적 이전의 방향이 대개 위 세대로부터 아래 세대로 흐르며, 시간 교환은 반대로 아래 세대로부터 위 세대 방향으로 이전된다.

〈표 2〉 유럽 50세 이상 인구의 재정적·시간적 이전

구분	재정적 이전		시간적 이전	
	give	receive	give	receive
50세 이상	80.3%	46.3%	24.7%	56.9%

출처: Attias-Donfut, Ogg, & Wolff,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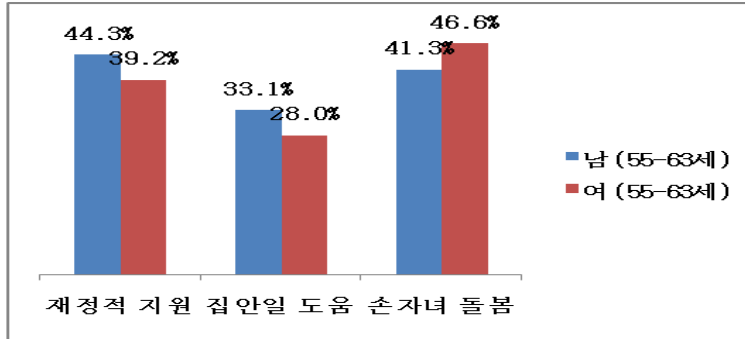
미국에서 55-63세 자녀가 있는 기혼남성의 44.3%가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33.1%가 집안일을 돕고, 41.3%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55-63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39.2%가 재정적 지원을 주고 28.0%가 집안일 도움을, 46.6%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다(Henretta, Grundy, & Harris, 2002). 이 연구는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미국 55-63세 기혼 남녀의 자녀에 대한 지원

구분	재정적 지원	집안일 도움	손자녀 돌봄
남(55-63세)	44.3%	33.1%	41.3%
여(55-63세)	39.2%	28.0%	46.6%

출처: Henretta, Grundy, & Harris, 2002

〈그림 1〉 미국 55~63세 기혼 남녀의 자녀에 대한 지원



출처: Henretta, Grundy, & Harri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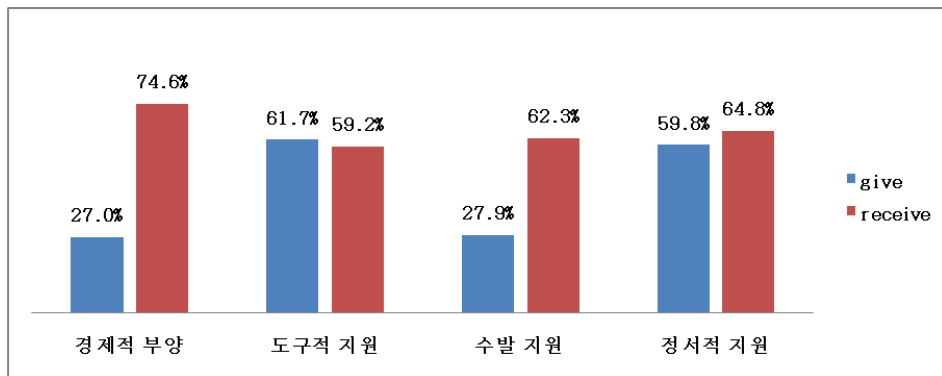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노인의 27%가 동거하는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74.6%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인의 23.7%가 비동거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노인의 93%가 비동거자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노인의 61.7%가 집안일이나 장보기 같은 도구적인 지원을 자녀와 손자녀에게 제공하고 59.2%가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2.3%의 노인이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이는 노인이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인과 비동거자녀의 경우, 도구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11.3%와 46.1%로 모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주고받는 비율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인 지원의 경우 노인 중 45.4%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 68.6%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3세대 동거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59.8%의 노인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64.8%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비동거자녀의 경우 노인이 주고받는 정서적인 도움은 각각 61.4%, 70.0%로 동거자녀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상호호혜적 자원교환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노인이 노화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성인자녀에 대한 노인의 의존이 늘어난다(이수연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표 4〉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자녀의 자원 이전

구분	경제적 부양		도구적 지원		수발 지원		정서적 지원	
	give	receive	give	receive	give	receive	give	receive
동거자녀	27.0%	74.6%	61.7%	59.2%	27.9%	62.3%	59.8%	64.8%
비동거자녀	23.7%	93.0%	11.3%	46.1%	7.7%	49.2%	61.4%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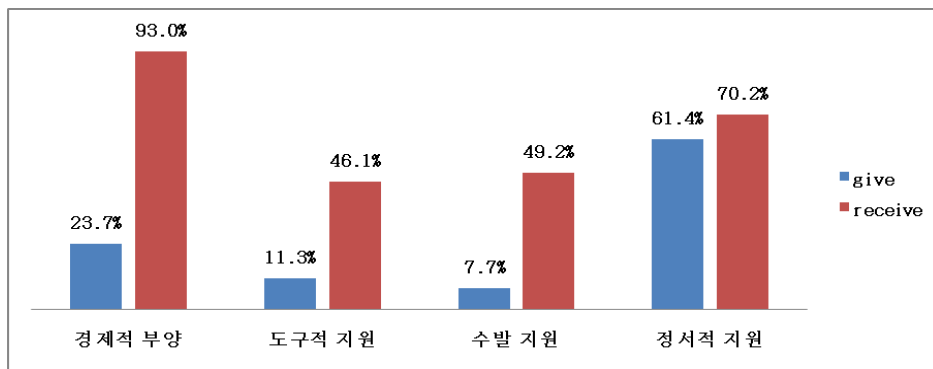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그림 2〉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자녀의 자원 이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그림 3〉 한국 65세 이상 노인과 비동거자녀의 자원 이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가족 내에서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은 경제적, 도구적 자원에서만 아니라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교환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세대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족 내에서 세대간 교육의 영역이 중요할 수 있다. 가족 환경에서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상호적 사회화를 촉진하게 되고, 젊은이는 문화적 유산과 역사를 알면서 성장하고 노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된다” (Hagestad & Uhlenberg, 2006). Mead(1970: Hagestad & Uhlenberg, 2006에서 재인용)는 조부모가 손자녀로부터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 장비 사용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같은 것을 배우고, 손자녀는 조부모로부터 미래에 대한 지속성과 희망을 인지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조부모세대는 손자녀세대로부터 컴퓨터 등을 배우는 등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Uhlenberg, 2000). 이는 가족내 노인세대와 손자녀세대의 세대통합, 곧 연령통합을 의미한다.

한편, 핵가족, 이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 체계의 변화는 조부모와 손자의 상호작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Bengtson(2001)은 이혼이 핵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확대가족의 방향으로 지지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자녀가 부모의 근처에 살면서 자녀양육에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임돈희, 자넬리, 2002; 정경희, 2002). 반대로, 자녀양육을 돕는 것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연령통합 현황은 요양원의 노인들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Riley & Riley, 2000). 실버타운에 위치한 보육시설의 아동들은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이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은 자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고 아동은 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의범절을 배운다(유복임, 2004). 1990년대 요양원 내 세대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다(신은정, 김춘화, 이화일, 이칭찬, 2012). 임재택, 김윤호, 김경호(1996: 신은정 외, 2012에서 재인용)가 보육시설 내 세대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4.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간 상호작용은 노인과의 사적인 교류 부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가지기 쉬운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과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원영희, 2004). 대학 부속 어린이집에서 학습지도를 포함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미취학아동이 참여하는 것이 미취학 아동의 노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Dellman-Jenkins, Lambert, & Fruit, 1991). 또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강의 보충을 위한 과학 지도에 참여할 때, 교실에 노인들이 있는 것 자체가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Dunham & Casadonte, 2009).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아동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며, 관심이 늘어나는 이익을 얻는 등의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Aday, McDuffie, & Sims, 1993; Aday, Sims, & Evans, 1991; Bales, Eklund, & Siffin, 2000; Cummings, Williams, & Ellis, 2004; Kassab & Vance, 1999).

둘째, 다양한 연령의 개인간 상호작용은 노인의 자부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호주의 조부모들은 조부모 역할에서 가장 좋은 점을 가족 발달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며, 사랑과 애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Peterson, 1999). 한국의 조부모는 한 방향으로 성인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자녀 돌봄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인에게도 이익을 준다. 혈육이 아닌 아동에 대한 노인의 관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노인의 참여에 장려책을 늘리고 참여의 이점과 기회에 대한 노인의 인지를 높이며 참여하는 노인을 모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Uhlenberg, 2009).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인이 삶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고 스스로 유용하다고 느끼게 하며 노화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Aday, Sims, & Evans, 1991; Kinnevy & Morrow-Howell, 2000). 또한 조사 응답자의 90%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Wrenn, Merdinger, Parry, & Miller, 1991; Kinnevy & Morrow-Howell, 2000에서 재인용), 노인 학습지도자는 지도가 주는 이점으로 사회화, 생산성, 기회이라고 보고하였다(Kinnevy & Morrow-Howell, 2000).

다음으로 사회적 수준에서 연령통합은 생애주기의 제도화를 완화시켜서 연령규범적 행동이 다르게 규정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각자의 욕구와 선호에 맞게 교육, 일, 은퇴, 여가의 시점에 대한 생애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정경희, 2004). 사회 구조의 연령통합적 모델은 일-가족 갈등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Loscooco, 2000).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친족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은 일-가족 삶의 양립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선택되었으며, 고용 불안정과 임금 문제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가족 전략이 유연하고 수정된 확대가족으로 이어졌다(김혜경, 2007). 부모세대의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간 교환을 기반으로 한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으로 이어졌다.

2) 부정적 측면

가족과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의 부정적 가능성은 세대나 가치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세대의 측면에서 첫째,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가족 내에서 세대간 가치나 규범의 불일치와 실제 생활에서의 갈등이 세대간 갈등으로 발전한다(김지영, 2005). 세대갈등은 노인의 기능 문제, 예를 들면 치매나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갈등, 부모-자녀 관계로 인한 갈등, 재산 상속과 관련된 갈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세대간 상호호혜적 균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할 때 세대 갈등이 발생한다. 세대간 이전이

라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실질적 지원이 노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녀나 손자녀가 조부모가 주는 도움의 형태를 기꺼이 생각하지 않을 때, 가족은 세대 갈등을 겪는다(이수연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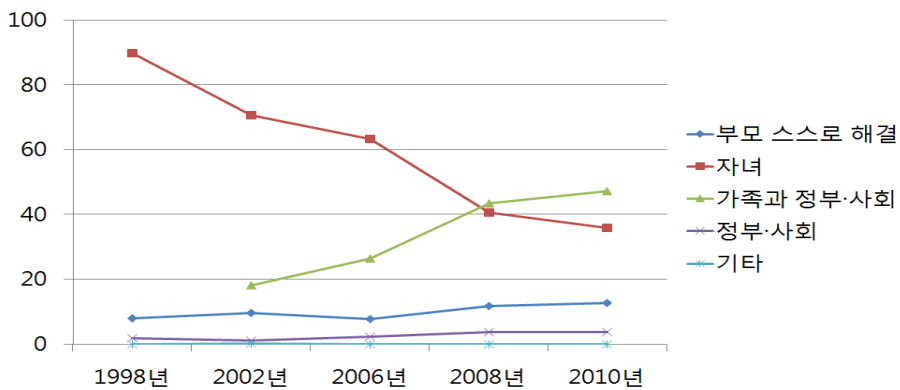
둘째, 자녀가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지원할 때,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 노인 지원의 1차적인 책임을 질 때, 가족구성원은 지원의 부담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고(Naleppa & Reid, 2003; 박봉길, 2005에서 재인용), 지지로 인한 감정적인 부담은 비애, 분노, 불안, 죄책감, 우울, 당황에 영향을 주고 가족 역동에 변화를 준다(Mellins, Blum, Boyd-Davis, & Gatz, 1993). 애정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가족 관계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큰 책임감, 기대, 죄책감으로 인한 경제적·감정적 부담감을 야기하며 극단적인 경우 노인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수연 외, 2010).

셋째, 세대간 도움은 대부분 여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Kohli, 2004). 따라서 중년 여성은 이중으로 헌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4; Berthoud & Gershuny, 2000; Grundy & Henretta, 2006에서 재인용). 즉, 이들을 “낀 세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가졌지만 그들 자신이 늙었을 때 자녀들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세대이다. 영국의 기혼 노인의 38.5%와 미국의 기혼 노인의 36.1%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Grundy & Henretta, 2006). 두 산업화 국가의 중년 여성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이 가족 내에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수연 외, 2010). 게다가 여성은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쉽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가족 내에서 노인의 1차적 돌봄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돌에 대한 높은 부담과 소진을 경험하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다(주경자, 김귀분, 2008).

다음으로 가치적 측면에서, 노인돌봄의 가치는 변화하였고 연령통합의 필요성은 약해졌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노인 부모를 모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인돌봄의 지원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확장

되어야 한다고 본다(조성남, 200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급격히 감소하여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부, 사회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그림 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부모 세대는 함께 살지 않아도 성인자녀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한다(임동희, 자넬리, 2002).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노인기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인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질문에 대하여 손자녀 세대 중 자녀가 노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 세대에 비하여 낮았다(이수연 외, 2010). 부모와 자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요소에 대하여 조부모 세대는 잦은 연락/방문과 감정적 친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는 잦은 연락/방문과 함께 도구적인 교환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잦은 연락/방문으로 생각하였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정서적인 친밀감과 도구적인 교환이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각 세대가 가진 다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부모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본인

들이 손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는 조부모의 비율이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기대하는 성인 자녀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동기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인 반면, 젊은 세대는 그들의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낀다(이수연 외, 2010).

반면, 성인자녀가 일을 하고 있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돌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인과 성인 자녀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해당 연구의 결과는 돌봄에 대한 보상과 갈등의 관계를 사회적 교환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보상 없는 돌봄으로 인한 조부모의 불만족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의 잠재적 요소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통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 현상이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해 근거를 통해 논의해 보았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범주와 연령구분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김경호, 2005).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마련된 연령분리적 사회구조에서 노년기는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시기로 구분되었으며, 노인을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고 사회활동에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가해졌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연령통합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연령장벽이 없는 가족은 연령과는 무관한 사회(age-irrelevant society)제도로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의 사례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이러한 가족이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족이 다하지 못한 기능을 보조해 주고 있어 연령통합의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령통합은 제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가족과 지역사회내 연령통합의 현황을 주로 자원교환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에서 자원교환은 흔하게 발생하며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모두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재정은 위세대에서 아래로, 시간은 아래세대에서 위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방향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 도구, 정서적 도움이외에도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교환도 가족과 지역사회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교환은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연령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통합의 긍정적 측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과 노인세대의 자부심과 삶의 만족도는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의 사회화, 생산성, 기회 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생산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생애주기의 제도화를 완화하여 생애주기상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대간 측면에서 보면 세대간 상호작용속에서 가치나 규범의 불일치로 실제생활에서 세대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부모-자녀세대갈등, 자녀세대간 갈등, 손자녀양육과 관련된 노부모-성인자녀세대간 갈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양과 관련된 세대간 도움이 주로 여성을 통해 제공됨으로 인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진되며,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가치적 측면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책임태도가 약화되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볼 때 가족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연령통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인 부양부담이나 양육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은 세대간 교류의 증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간 교류의 증진은 세대간 이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세대간 이해증진과 세대간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갈등을 약화시키고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는냐가 관건

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가족안에서는 규범에 의해 이러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러한 경향은 우리 가족제도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범도 약화되고 있으므로 가족안에서 세대간 이해증진은 결국 이타주의 또는 애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세대와 함께하는 가족의 강한 유대는 가족안에서의 연령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 내 세대 간 이전은 자녀에 관한 부모의 이타적 관심에 좌우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Kohli, 2004: 268; Cicirelli, 1993). 자녀들은 부모와 오랜 시간 함께할 때 부모를 자주 생각하고 만약 오랜 시간동안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양육하며 정서적 지원 또는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질병, 이혼, 실직과 같은 위기 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지속한다(Cicirelli, 1993: quoted in Mercier, Shelley, & Wall, 1997: 162-163).

결론적으로 가족안에서 세대간 가족유대를 통해 나타난 연령통합은 확대된 사회에서 연령분절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 영역은 연령간 관계, 다세대간 관계와 전환 안에서의 다른 사회제도와 구분되어 연령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Kohli, 2004: 267). 이러한 가족의 연령통합적 속성은 사회제도에서도 연령통합적 속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통합적 패러다임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원적 역할이 생의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역할과 과업을 생의 단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조명하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노인 개개인의 역량을 인정하는 연령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즉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고령인구에 대한 선택적 친화력이 높은 사회구성원리인 연령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정경희, 2004).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 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향후 연령통합을 위한 사회 구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경호 (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553-582.
- 김 옥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김지영 (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연구총서. 2005(18-2), 1-187.
- 김혜경 (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 - 60년대 산업화 이후 친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7(2), 37-82.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박봉길. (2005).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노인복지연구**. 28(-), 403-428.
-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현황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5(1), 379-410.
- 신은정, 김춘화, 이화일, 이칭찬 (2012). 너싱홈(Nursing Home)프로그램이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223-252.
- 유복임 (2004). 한국 유아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노블카운티 삼성어린이집 프로그램.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4년, 358-358.
- 원영희 (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87-206.
-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

- 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14), 1-382.
- 임돈희, 자넬리 (2002). 한국 가족 변화의 의미. **비교민속학**. 22(-), 321-336.
- 정경희 (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29-40.
-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7(-), 11-26.
- 정순돌,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순돌, 김유휘, 최혜지(2013).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의 관계: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비교. **보건사회연구** 33(3),
- 조성남 (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 **한국인구학**. 29(3), 139-157.
- 주경자, 김귀분 (2008). 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소진감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278-289.
- 통계청 (2010). **2010년사회조사결과(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년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한정란 (2002). 세대간 통합을 위한 교육노년학적 논의: 세대 공동체 교육.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37-68.
- Aday, R., McDuffie, W., & Sims, C. (1993).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black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19(7), 663 - 673.
- Aday, R., Sims, C., &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3), 362 - 384.
- Albertini, M., Kohli, M., & Vogel, C. (2007).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time and money in European families: common patterns different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7(-), 319-334.
- Attias-Donfut, C. (2000). Cultural and Economic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One Aspect of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70-272.

- Attias-Donfut, C., Ogg, J., & Wolff, F. (2005). European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and time transfers. *European Journal of Ageing* 2005(2), 161-173.
- Bales, S., Eklund, S., & Siffin, C. (2000). Children's perceptions of elders before and after a school-based intergenerational program. *Educational Gerontology* 26(7), 677 - 689.
- Bengtson, V.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6.
- Cicirelli, Victor G. (1993). Attachment and obligation as daughters' motives for caregiving behavior and subsequent effect on subjective burden. *Psychology and Aging* 8(2), 144-155.
- Cummings, S. M., Williams, M. M., & Ellis, R. A. (2004).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4th graders' attitudes toward elders and school behavio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8(1), 43-61.
- Dellman-Jenkins, M., Lambert, D., & Fruit, D. (1991). Fostering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s toward the elderly: The effect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Educational Gerontology*, 17(1), 21-32.
- Dunham, C. & Casadonte, D. (2009). Children's Attitudes and Classroom Interaction in an Intergenerational Education Program. *Educational gerontology* 35(5), 453-464.
-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272-276.
- Grundy, E. & Henretta, J. C. (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and Society* 28(5), 707-722.
- Hagestad, G. & Uhlenberg, P. (2006). Should We Be Concerned About Age Segregatio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s.

- Research on Aging* 28(6), 638-653.
- Henretta, J. C., Grundy, E. & Harris, S. (200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and health differences on parents' provision of help to adult children: a British-United States comparison. *Ageing and Society* 22(4), 441-458.
- Kassab, C., & Vance, L. (1999).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for youth. *Psychological Reports* 84(1), 198 - 200.
- Kinnevy, S. & Morrow-Howell, N. (2000). Perceived Benefits of Intergenerational Tutoring.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20(2), 3-17.
- Kohli, M. (2004).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heritance: A Comparative View.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 Geriatrics* 24(-), 266-289.
- Kohli, M., Hank, K., & Künemund, H. (2009). The social connectedness of older Europeans: patterns, dynamics and context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09(19), 327-340.
- Laws, G. (1995).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1), 112-118.
- Loscocco, K. (2000). Age Integration as a Solution to Work-Family Conflict. *The Gerontologist* 40(3), 292-300.
- Mellins, C. A., Blum, M. J., Boyd-Davis, S. L., & Gatz, M. (1993). Family network perspectives on caregiving. *Generations* 17(1), 21-24.
- Mercier, J. M., Shelley, M. C., & Wall, B. (1997). Quality of Adult Child-Aging Parent Relationships: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Using Merged Cross-Generational Data.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6(2), 160 - 192.
- Peterson. C. C. (1999).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Satisfaction with the Grandparenting Role: Seeking New Answers to Old Ques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9(1),61-78.

RILEY, M. W. (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 Syracuse University.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 - 270.

Sánchez, M., & Martínez, A. (2007). A society for all ages. Intergenerational Programmes: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Available online at www.laCaixa.es/ObraSocial [Accessed June].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61-266.

Uhlenberg, P. (2009). Children in 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4B(4), 489 - 496.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